

『밤티 마을 영미네 집』 독후 활동지



이금이 글 | 한지선 그림
밤티 | 128쪽 | 초등 3-4학년 | 밤티 마을 2

“

“영미야, 우리 하는 데까지 해 보자.”
세계에 대한 믿음과 안정감을 주는 이야기

”

활동1 가족이란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큰돌이와 영미는 처음에 새엄마를 보고 '팔쥐 엄마'라고 부르며 절대 엄마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하지만 어느새 새엄마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떨 때 서로를 가족이라고 느낄까요?
책에서 발췌한 아래 글을 읽고 '가족이란 ~'에 이어질 내용을 채워보세요.

(1) 큰돌이와 영미는 고추 모를 나르고 할아버지가 구덩이를 팠어요. 그 구덩이에 팔쥐 엄마가 고추 모를 심으면 아빠는 물뿌리개로 물을 주었고요. 오래전부터 해 온 것처럼 온 식구의 손이 척척 맞았습니다. 큰돌이와 영미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추 모를 날랐어요. (53쪽)

(예시) 가족이란, 혼자서는 못 하는 힘든일을 다함께 해내는 존재들이에요.

힘든일도 가족이랑 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고 막 신나기도 하고요.

(2) "영미야, 내일 모레가 팔쥐 엄마 생일이래. 우리 돈 합쳐서 선물 사자."
"그래? 좋아. 뭐 살까?"
"손에 바르는 화장품 어때?" (57쪽)

가족이란,

(3) "할아버지, 우리가 저녁밥 해 놓을까?"
큰돌이가 말했어요. 큰돌이와 영미는 할아버지를 도와 저녁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제발 팔쥐 엄마에게 별일 없기를 바라면서요. (119쪽)

가족이란,

활동2 팔쥐 엄마는 나쁜 사람일까

고전 동화인 <콩쥐 팥쥐>는 착한 콩쥐가 나쁜 새엄마와 이복동생 팥쥐에게 구박을 받지만 고난을 견디고 행복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옥순 엄마의 별명인 '팔쥐 엄마'는 이 이야기에서 따온 것이지요. 팔쥐 엄마에 관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여러분은 『밤티 마을 큰돌이네 집』에서 '팔쥐 엄마'가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2. 『밤티 마을 큰돌이네 집』과 『밤티 마을 영미네 집』을 읽으면서, '팔쥐 엄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처음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했나요?

3. '편견'이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뜻합니다. 발췌한 아래의 신문 기사를 읽으며 우리 사회의 '새엄마(계모)'에 대한 편견에 대해 생각해 보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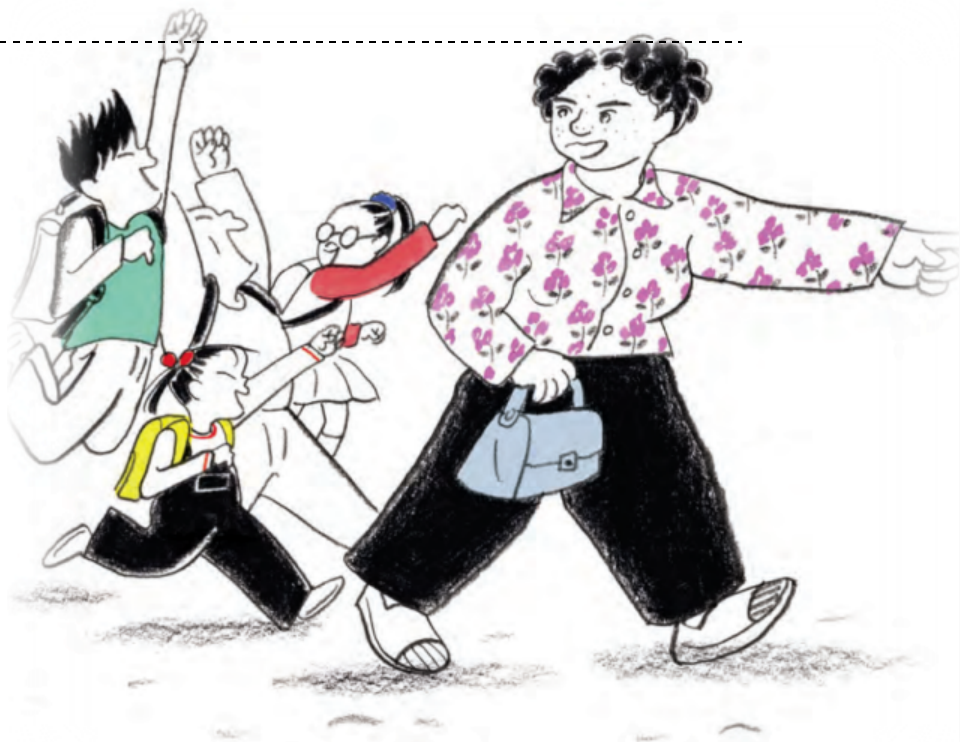
“동화에 나오는 계모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계모는 이을 계, 어미 모, ‘엄마를 잇는 엄마’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단어인데 부끄러운 일처럼 되는 게 안타까웠어요. ‘하이바이,마마!’를 통해 계모에 대한 편견이 없어졌으면,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출처: 신영은 기자, '하이바이,마마!' 고보결 “계모 향한 편견 없어졌으면”, 매일경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계모’부터 떠올리는 우리 사회의 그릇된 인식을 바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아동학대 가해자의 77%는 친부모이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계부모나 양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훨씬 차갑다. 따라서 정부기관, 언론이 앞장서서 가해자를 ‘부모’로 통일하는 등 왜곡된 인식을 바꾸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출처: 정현용 기자, '실제 콩쥐는 2%뿐인데...계모가 죄인가요', 서울신문)

- 우리 사회에서 '새엄마'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상처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 '새엄마'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사회의 여러 요인 중 한 가지를 찾아 써 봅시다.

4. 여러분도 어떤 '편견'으로 인해 상처받은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이 겪은 '편견'은 무엇인지, 그때 여러분의 감정은 어떠했는지 써 봅시다.



활동3 사랑의 방식

누군가를 사랑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라요.
책 속의 인물들도 때로는 서툴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인물들의 행동이나 말, 마음씨에서 사랑을 느낀 장면을 찾아 써 봅시다.

예시) 큰돌이는 팔쥐 엄마 방에 슬그머니 비누를 놓았습니다.



활동5 이름으로 가족 소개하기

『밤티 마을 영미네 집』에서는 드디어 팔쥐 엄마의 진짜 이름이 나와요. '정옥순'이라는 아주 고운 이름이지요. 이름을 알고 나니, 팔쥐 엄마의 이야기에 더 깊은 공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도, 호칭이 아닌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이 언제일까요?

'엄마'나 '할아버지' 같은 호칭이 아닌 이름으로, 나의 가족들을 소개해 봅시다.

내 가족 (이름) 은,

내 가족 (이름) 은,

내 가족 (이름) 은,

활동6 징검다리 건너서

팔쥐 엄마와 아이들은 여러 사건을 계기로 점점 서로에 대한 마음의 벽을 허물어 갑니다.

서로에게 가는 길목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움직인 사건들을 아래의 징검다리에 적어 봅시다.



